



연합뉴스 노조 강력투쟁 선포

3주 총력투쟁 마지막 주를 맞아 연합뉴스 노조는 더욱 강력한 투쟁을 벌여 나가기로 천명했다.

노조는 24일 본사 앞 한빛공원에서 본사와 지방 조합원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궐기대회를 열고 총력투쟁의 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공병설 노조위원장은 투쟁사에서 “3주 총력투쟁 기간이 4일밖에 남지 않았다”며 “노조는 박정찬 사장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토, 일요일에도 협상 테이블에 앉을 자세가 돼 있는데 사장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며 사측 태도를 비판했다.

이어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던 사장이 계속해서 만남을 미뤄 26일이나 대면할 수 있게 됐다”며 “이는 조속히 타결안을 마련하자는 사람의 태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 위원장은 “시간이 흐지부지 흘러가는 상황에서 언제까지나 기다려줄 수는 없다”며 “사장에게 마지막으로 시한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려 한다”고 밝혔다.

공 위원장은 “사측이 평화롭게 사태를 푸는 방안을 건어찬다면 지금보다 한층 더 격한 투쟁을 보여

주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강력한 투쟁을 결의하는 조합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응원 메시지를 보내온 황희경 홍콩 특파원은 “찬바람이 불 때 투쟁을 시작했는데 아직도 ‘연합의 봄’이 오지 않아 마음이 답답해진다”며 “쟁의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결집된 힘을 모아 봄이 올 것”이라고 전했다.

증권부 한지훈 조합원은 안토니오 그람시의 『옥중서한』에 나오는 문구인 ‘이성으로 비판하되 의지로 낙관하라’를 소개하며 조합원들에게 힘을 불어넣었다.

한 조합원은 “이성적으로 따졌을 때 사측과 타협하고 업무에 복귀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기도 하지만 끝까지 의지로 낙관해 승리하자”고 말했다.

제주분부를 포함한 지방 조합원들도 총궐기에 참여해 강고한 투쟁의지를 다졌다.

경남취재본부의 최병길 조합원은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회사 다니면서 파업 한 번 해봤다고 말할 수 있어야지 회사 눈치밥만 먹을 수 있겠느냐”며 “비도 그칠 때가 됐으니 피할 수 없다면 즐기자”는 다부진 의지를 밝혀 박수를 받았다. 대전충남취재본부의 정윤덕 조합원도 “박 사장이 물러나야 연합뉴스가 바로 선다”며 힘차게 “투쟁!”을 외쳤다.

노조는 총궐기대회 후 7층 사장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5층 편집국을 돌며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파업참여를 호소했다.



“자기 제안마저 버리는 걸 보니 모욕감마저 든다”

조합원들, 노조 투쟁 수위 높이는 데 공감

총력투쟁 마지막 주를 맞아 조합원들은 노조가 투쟁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정찬 사장이 대화에 나설 의지가 부족하니 노조가 좀 더 압박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23일 오후 본사 8층에서 열린 조합원 총회 조별 토론회에서 조합원들은 노조의 강력한 투쟁의지를 보여 줄 여러 방안을 내놓았다. 공통으로 나온 것은 사장실 앞 집회다. 사장 출근 저지투쟁을 재개하자는 목소리도 많았다.

사장실을 점거하자는 강경한 주장도 있었다. 편집국에서 1인 시위나 집회를 열어 부장들에게 파업 중이란 사

실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총력투쟁 차원에서 릴레이 단식을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신사옥 크레인에 올라간다가거나 누드 시위를 하자는 이색제안도 나왔다. 편집국이나 사장실에서 텐트 치고 농성하자는 조합원도 있었다.

일부 조합원들은 이번 파업을 사회적으로 이슈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파업을 회사 내부 문제로 가두지 말고 사장 임명에 책임이 있는 정치권에 호소하거나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여는 방안을 고려해보자는 것이다. 지방취재본부에서 하는 것처럼 출입처

에 나가서 출입처 관계자나 타사 기자들에게 파업상황을 알리자고도 했다.

파업 대오의 외연을 넓히자는 방안도 나왔다. 부장들을 설득하자, 또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14~16기 중견 선배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그 요지다.

수습기자들의 파업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는 것도 조합원들의 중론 중 하나였다. 사측은 그동안 수습기자들에 의존해 그럭저럭 기사를 내보낼 수 있었다. 5월부터 수습기자들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되니 이 기회에 파업효과를 극대화하자는 계획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사내 여론전을 강

화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하루에 10~20명씩 실명으로 사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글을 사내 게시판에 올리거나 노조 게시판에 강경한 입장의 짧은 연차의 글을 더 많이 올라와야 한다고 했다.

한 조합원은 “박 사장이 총선 지나고 자기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깐 자기 제안마저 쓰레기통에 처박으려 하는 걸 보니 모욕감마저 든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이제는 보다 더 강력하게 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사장실 점거 등 사측의 경각심을 높일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조 게시판을 통해 본 연합뉴스 파업

※ 이곳은 포장마차였다. 조합원 총회에서 미처 말하지 못한 속마음 보따리가 이곳에서 풀렸다. 23년 만의 파업으로 고달프고 외로운 고민들을 소주 한 잔처럼 꺾어 마셨다. 평소에는 쑥스러워 표현 못 한 동지애를 새벽에 이곳에서 취중고백했다. 계급장 떼고 토로한 후배의 서운함을 선배가 감싸 안기도 했고, 유쾌·통쾌한 댓글들이 술잔처럼 부딪혔다.

총파업 41일째를 맞아 노조 게시판을 되돌아봤다. 총파업이 시작된 지난달 15일 이래 조합원 게시판을 뜨겁게 달궜던 '핫이슈 변천사'를 정리해 조합원들이 사로잡았던 고민의 흐름을 되짚는다. 또 조합원들의 뜨거운 관심을 독차지한 '댓글이 와글' 와글 게시물'들도 함께 소개한다.

<사내 여론 맨얼굴> 게시판 달군 이슈는

노조 온라인 게시판의 '사원 커뮤니티'는 총파업 기간 투쟁의 고비마다 조합원들이 연차나 부서에 구애받지 않고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장이 됐다. 속속 변화하는 투쟁의 쟁점과 함께 40여일간 사원 커뮤니티를 오르내렸던 이슈들을 정리했다.

◇ '격론의 현장' 사원 커뮤니티 = 사내게시판이 기명 성명서가 오르는 공식적인 공간이었다면, 노조 게시판은 쟁점에 대한 조합원들의 날 것 그대로의 반응을 엿볼 수 있는 '사내 여론의 민낯'이었다.

박정찬 사장이 3월21일 주주총회 이후 특위 구성 및 사원 불신임투표라는 이른바 '2+1'안을 내놓았을 때 게시판은 가장 뜨겁게 달아올랐다.

'우리 투쟁의 제1원리가 박 사장의 즉각적인 퇴진임을 잊지 말자'(작성자 수학) '박 사장 안의 결론은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는 것'(작성자 논리학자) 등 박 사장의 안을 '꼼수'로 규정하면서 원칙을 지켜나가자는 논의가 많았다. 노조가 투표안을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도 격렬했다.

조합원들에게 큰 고민을 안겼던 3월 말 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는 정상회의장 앞에서 선전전을 벌이자는 제안이 나와 논쟁이 일기도 했다.

4월 초 노조와 사측이 협상을 시작하고부터는 '이제부터가 정말 정신을 집중해야 할 때'(작성자 비타민)라며 조합원들을 다독이는 글이 올라왔다. 4월6일 내려진 업무복귀 명령 이후엔 사측의 의도를 명확히 보고 흔들리지 말자는 독려가 이어졌다.

이후 협상 국면에 접어들면서 얼마간 잠잠해졌던 게시판을 다시금 달군 이슈는 4~7기가 내놓은 '2개월 이내 또는 6월 말 이전 사장

거취투표'라는 중재안이였다.

사측이 중재안 수용 여부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뜬을 들이는 태도를 보이자 국장, 부장단이 나서야 한다는 호소가 잇따랐다.

그러나 익명 시스템으로 인해 때로 토론이 격해지면서 의견을 달리하는 이에 대한 날이 선 공격이 오가기도 해 일부는 인신공격성 글에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 속내 털어놓는 따뜻한 공간 되기도 = 23년 만의 역사적인 연합뉴스 첫 총파업인 만큼 조합원들은 파업에 참여하면서 느끼는 흥분과 감회를 게시판에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다.

함께 투쟁에 나선 동료에 대한 애정, 박 사장에 대한 촌철살인의 비판, '연합뉴스의 봄'을 기다리는 조합원들의 소망이 담긴 시와 노래 등이 연일 게시판을 채웠다.

파업 전야에 올라온 "여보, 우리 15일부터 파업이야"(작성자 소심이) "여보, 15일부터 파업이지?"(작성자 조합원3)는 각각 공정보도를 위해 잠시 일터를 떠나는 남편과 아내에게 조합원 가족이 보낸 마음을 전해 읽는 이를 울컥하게 했다.

'숙취'라는 이름의 작성이 4월10일 올린 '새벽에 행복했습니다'는 파업 중인 연합뉴스 기자라는 말에 택시기사가 택시비를 받지 않았다는 사연으로 조합원들의 마음을 데웠다.

조합원들은 동료가 참여한 영상이나 언론 인터뷰를 게시판에서 공유하며 직접 건네지 못했던 격려를 보내기도 했다.

2010년 입사한 조합원들이 제작한 뮤직비디오 '용감한 사원들'과 최근 파업 콘서트에서 첫 선을 보인 '춘사마 차력단' 공연 영상에도 많은 댓글이 달리며 환호가 쏟아졌다.

<댓글이 '와글와글' 게시물>

◆ 황두형 부장계(댓글수: 22개, 작성자: 30기, 날짜: 3월17일) = "좌파의 세뇌 교육을 받은 새내기들이 언론 파업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황두형 부장이 지난 3월17일 사내게시판에 올린 게시물에 반박하는 글이 최다 댓글을 기록했다.

'30기'라는 필명을 사용한 조합원은 해당 글에서 황 부장의 글이 "29~31기 가장 아래 기수가 용기 내어 시작한 성명을 욕되게 했다"고 말했다. 또한 "좌편향이니 호남사장 만들기니 하는 색깔론 억측은 저희들 마음으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두렵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첫 성명을 준비했던 조합원들의 진정성을 강조했다.

이에 '26기' 조합원은 "30기 후배님 울지 마세요. 저희가 지켜드리겠습니다"라고 답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우리는 객관적 중립성을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니 좌파의 논리를 대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분명하게 대응하는 등 순수한 파업의지를 정치적 놀음으로 치부한 데 항의하는 다수의 댓글이 잇따랐다.

◆ 불공정보도의 책임은 투표로 면제될 수 없습니다(댓글수: 21개, 작성자: 기본, 날짜: 3월28일)

= "제 거취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여러분 뜻에 맡기겠다"며 특위 구성 및 사원 불신임 투표를 제안했던 3월28일 박정찬 사장의 글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글이 두 번째로 많은 댓글을 기록했다.

'기본' 조합원은 자신의 글에서 "불공정 보도와 독단적 인사, 파행적 경영의 책임이 과연 투표로 면제될 수 있는 것입니까"라고 반문하며 투표 결과만으로 박 사장의 과오를 씻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파업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박 사장이 내놓은 제안에 대해서 조합원간의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된 것이다.

댓글에서 다수는 "사장이 던져놓은 떡밥이 먹을 만한지를 따져 보느라 사장이 떡밥을 던질 자격이 있는지 잊어버린 것 아니냐"라며 박 사장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해당 제안을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냥 무시할 안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등 찬반의견이 팽팽했다.

◆ <특파원 공지> 트위터 응원글 받습니다(댓글수: 13개, 작성자: 노조, 날짜: 4월09일)

= 낮은 땅에서 홀로 내리는 결단은 더욱 외롭다. 그래서 더욱 어렵다. 타국에서 파업에 동참하는 특파원들의 사연과 결심이 뜨거운 관심을 받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노조가 파업 홍보를 위해 특파원들에게 온라인 응원글을 요청하자 지구촌 곳곳에서 반가운 '파랑새'들이 트위터에 날아들었다.

박종국 특파원(선양)은 "자기검열의 탓에 매몰됐던 지난 시절이 부끄럽다"면서 "목표가 실현되는 그날까지 후배들의 곁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한상용 특파원(카이로)은 "카이로는 38도의 뜨거운 날씨를 보이지만, 연합 노조의 열정은 이보다 더 뜨겁다"고 말했다. 이주영 특파원(자카르타)은 "졸지마! 우리 뒤엔 공정보도가 있고 그 뒤엔 국민이 있다"고 힘을 실었다. 그밖에 양정우(멕시코 시티), 이정진(브뤼셀), 박창욱(베를린), 맹찬형(제네바), 유창엽(뉴델리), 한승호(상하이), 유현민(두바이) 특파원이 바로 옆에서 외치듯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